광주매일신문 제8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1강 '당신을 부의 성공으로 끌어당기는 운의 창조' 최인태 명리학자

"운은 타고난 것? 운은 창조할 수 있습니다"

천기에 지기·인기 더해지면 운명도 바꿀 수 있어
음식·사는 곳·궁합·글 등 생활 속 활용법 실천을

광주매일신문 주최로 지난 14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8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11강에서 최인태 명리학자이자 천문역원 원장이 '당신을 부의 성공으로 끌어당기는 운의 창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운은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타고난 천기(天氣)를 알고 지기(地氣)와 인기(人氣)를 보완해야 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명을 알고 운을 창조하면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주최로 지난 14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8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11강에서 최인태 명리학자이자 천문역원 원장은 '당신을 부의 성공으로 끌어당기는 운의 창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 원장은 이날 천지인(天地人)이 도우면 타고난 운명조차도 바꿀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타고난 천기인 운과 명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천기에 따라 자신에게 부족한 지기와 인기가 끌어당겨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타고난 운명이 같아도 각자에게 주어진 지기와 인기가 달라 인생도 제각각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가수 비(정지훈)는 타고난 천운(天運)으로도 큰 그릇이지만 부족한 지기와 인기가 더해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부와 성공을 거머쥐었다는 게 최 원장의 설명이다.

최 원장은 또 "음식은 생명이자 운명"이라고 전제한 뒤 "먹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며 "먹는 것을 조절하면 어느 순간 운명이 바뀌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사는 곳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며 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했는데 일이 안 풀리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 햇빛과 조명을 조절해 집안에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을 끌어당기면 된다. 또는 어질러지고 흐트러진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정돈만 잘 해도 맑고 깨끗한 기운이 흘러 탁기가 해소되고 생기가 흐른다.

이와 함께 '궁합이 맞아야 행복하다'고 강연을 이어갔다. 야구선수 류현진과 전 아나운서 배지현 부부를 두고 "류 선수는 결혼 후 야구를 더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류 선수에게 부족한 지기와 인기를 배 전 아나운서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로에게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주는 '궁합이 잘 맞는' 경우라고 이해를 도왔다.

최 원장은 일상 속에서 행운을 만들 수 있는 '단전 호흡법'도 언급했다.

단전 호흡법은 배꼽 아래 손가락 세마디 끝 위치가 단전이며 그 단전에 힘을 준 채로 한글 가나다부터 타파하까지 한 자 한 자 끊어서 큰 소리로 외치는 방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몸에 기운이 돌고 심신이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사파이어나 루비, 흑진주 등 유색 보석을 몸에 지녀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는 '색'(色) 이용법과 글에도 기운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기(氣) 즉 에너지, 파동이 존재한다.

이에 최 원장은 참석자들에게 본인의 저서 '운의 기술'을 나눠준 뒤 맨 뒷장 포스트잇에 자신의 소원을 적어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 원장은 호흡을 들이마셨다 숨을 밖으로 꺼내기를 반복하는 호흡법과 명상법을 소개하면서 "운의 속성을 모른 채 성공한 사람들도 많다"면서도 "운에는 법칙이 있다"며 "그것이 바로 '행동'"이라고 힘주어 얘기하며 강연을 끝맺었다.

최 원장은 전통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학문과 실전상담, 수행을 겸하고 있으며 동양학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운의 기술', '역하되 역하지 말라' 등이 있다. /기수희 기자

박상욱 전남대 교수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

전남대는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상욱 교수가 2021년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재생의료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임상 연계를 통한 재생의료 치료제 치료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박상욱 교수는 앞으로 3년 동안 약 1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CRISPR/Cas9 유전자 교정기법 및 인간만능줄기세포 분화 기술, 3D 프린팅 기술들을 융합해 다종세포 기반 3D 인간 골다공증 모사체를 개발하게 된다.

또 이를 활용해 파골세포 분화 및 활성화를 억제하는 TRAF6 억제제의 유효성 및 독성을 평가함으로써 신규 골다공증 치료 선도물질에 대한 비임상연구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임낙평 서구 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 임명

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갈 초대 이사장에 임낙평 전 광주시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024년 9월13일까지 3년이다.

임 초대 이사장은 시민단체와 공직 경력을 두루 겸비한 환경전문가다. 시민사회 활동 경력으로 광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을 역임하고, 공직 경력으로는 광주시 (재)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임 이사장은 "초대 이사장이라는 무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효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명진 기자

닷넷소프트, 광주 돌봄이웃 청소년 교통비 지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광주사랑의열매)는 IT 전문기업 ㈜닷넷소프트가 돌봄이웃 청소년을 위한 교통카드 지원사업 성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광주 돌봄이웃 청소년의 한 학기 교통비로 지원된다.

이날 행사에는 ㈜닷넷소프트 최병준 대표를 비롯해 장휘국 교육감, 이성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5회에 걸쳐 총 1억원의 성금이 청소년 500명에게 지원됐다.

최병준 ㈜닷넷소프트 대표는 "교통비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행복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착한일터에 가입돼 있는 ㈜닷넷소프트는 전 직원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직장 내 나눔문화 활성화로 2021년 '더 베스트 착한일터'로 선정됐다. /최명진 기자

양홍준

고영철

정용규

이영숙

김종훈

북구, 제14회 구민상 수상자 5명 선정

광주 북구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주민 5명을 '제14회 구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구민상은 ▲지역경제 ▲지역사회봉사 ▲문화예술체육 ▲효행 ▲장한장애인 등 5개 부문으로 공모가 진행됐다.

지역경제 부문 수상자인 양홍준(43) 㷊-온돌㈜ 대표이사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난방기술을 개발해 관련 산업 발전에 일조했다.

지역사회봉사 부문의 고영철(62) 문화신협 이사장은 복지 환경 분야 진흥을 위해 다양한 봉사와 후원활동을 펼치며 사회에 귀감이 됐다.

문화예술체육 부문의 정용규(65)씨는 북구미술인조형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양산동 따순마을 조성, 광주비엔날레 참여 등 공공미술 저변 확대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효행 부문의 이영숙(58·여)씨는 13남매의 장손 며느리로 4남매를 키우면서 치매 증상이 있는 시부모를 모시는 효를 실천했다.

장한장애인 부문의 김종훈(71)씨는 1급 중도장애를 가졌음에도 척수장애인 온라인 동호회를 결성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하는 등 장애인 가족 지원과 교류의 장을 만드는데 이바지했다.

한편 북구는 오는 27일 열리는 '2021 북구민의 날' 행사에서 구민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김동수 기자

영암소방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캠페인

영암소방서는 지난 14일 추석을 앞두고 화재 발생 저감 및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독천5일시장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영암군 및 군의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영암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합동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안내 ▲화재 예방 홍보물 배부 ▲점포별 시설 및 화기 취급 주의 당부 등으로 진행됐다.

박학순 영암소방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군민을 위해 캠페인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영 기자

목포 청년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 수료식

목포상공회의소와 고용노동부, 목포시가 주관하는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청년스타트업 창업지원사업' 제2기 교육 수료식이 최근 목포상의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수료식은 최창호 목포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목포시 일자리청년 정책과 권용선 과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및 시 관계자, 강사진과 수료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년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은 총 15명이 모집돼 최근 6일간 목포상의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2016년 10월21일부터 지금까지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해 교육수료생 100여명을 포함해 총 80명의 창업자를 배출했다.

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교육을 계기로 많은 창업이 이뤄져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의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효령노인복지타운, 한가위 이웃사랑 나눔 행사

효령노인복지타운(이하 효령타운)은 추석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고 좋은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뜻깊은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효령타운 직원들은 최근 복지취약계층 어르신 1천여명에게 안부 확인과 추석 꾸러미(송편, 유과, 반찬 등)를 전달했으며, 회원들에게는 식생활 교육 광주네트워크에서 후원받은 사과 100세트를 전달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회원들에게 활력을 드리기 위해 스포츠 대항전 '파크골프, 테니스, 게이트볼'을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했으며, 16일에는 타운 로비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복 입고 따뜻한 메시지 전달' 행사를 마련했다.

김만수 광주복지연구원장은 "이웃사랑 나눔행사가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의 안부 확인과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승지 기자

안내

●제3회 환경살리기 운동 학생·시민 인터넷(온라인) 백일장 응모=9월1일-10월8일, 환경오염 실태 고발, 예방 및 환경 살리기에 대한 시·동시·시조·디카시 개인당 1편, 원고는 광주시인협회 카페나 메일로 접수(※광주시 거주자에 한함. 반드시 주소, 성명, 연락처 기재:학생은 학교 학년 반 기재) 문의: 062-233-8816

●서석문학아카데미 문학강좌 수강생 모집=월(14:00-16:00) 시 쓰기 기초·심화반) : 시인 이길옥(9월30일 마감), 화(19:00-21:00) 시 창작반 : 문학박사 박덕은 (9월30일 마감), 목(14:30-16:30) 시낭송반 : 시낭송지도사 최도순 (수시 모집) ※각 파트별 본회 소정의 회비. 문의 062-233-8816

결혼

●장택규·이양희씨 장남 효군, 이재환(광주서석고 2회 전 동창회장)·이향희씨 장녀 호정양=10월3일(일) 오후 1시 드메르웨딩홀 2층 CN홀. 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062-228-0000, 010-3627-4060.

부음

●배갑순씨 별세, 배복환(광주시청 국장·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씨 부친상=발인 16일(목) 오전 광주 동구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062-227-4000).

서부소방서, 가을철 산악 안전대책 추진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양영규)는 오는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악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 ▲산악 및 벌 쏘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진행 ▲등산로 안전시설물 및 위치표지판 정비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등이다.

조호익 재난대응과장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해남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현장 간담회

해남경찰서(서장 송세호)는 15일 문내농협을 방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남은 고령 인구비율이 33.1%로 초고령화 사회인만큼 어르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Morning Nine'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송세호 해남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 긴밀한 신고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